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북남관계완화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리유중 하나가 미국과 함께 벌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끝났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독수리》전쟁연습때문에 조선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었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한것이나 같다.

동족을 반대하여 군 두달 간이나 온 남녘땅을 북침전쟁연습의 불마당으로 만들어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실컷 몰아가고는 이제와서 연습이 끝났으니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여론을 내둘리려는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는 속담을 럽장케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가 바라는것이다. 하다면 전쟁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북남관계를 가로막고있는 엄중한 장애물들이 당장 사라지기도 했단 말인가.

다 아는것처럼 올해에 들어와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온갖 불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위기에 처하였다. 특히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

수리》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좋게 볼 북남관계는 된서리를 맞아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점경으로 치달아올랐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무슨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는 상투적인 께변을 늘어놓으며 그 규모와 내용, 위험성에 있어서 사상최대의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

## 관계개선이냐, 전쟁연습이냐

합동군사연습소동을 끝낼내벌려놓았다.

더우기 40여일간이나 진행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래평양함대의 핵추진잠수함 《콜럼버스》호와 미제7함대의 기함이며 상륙전지휘함인 《블루리تز》호를 비롯한 수많은 최신공격수단들과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군부당국자들이 올해의 연습규모가 줄어들것이라고 술술 내둘리던 수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것이다.

이번 연습의 성격과 내용도 그 누구의 《지휘석령》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밀타

격》, 《핵무기제거》, 상륙및 기습작전, 시가전, 《집령》후 치안작전 등과 같이 극히 침략적이고 도발적인것이었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의 포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여진 연합상륙훈련이다. 《쌍용》의 간판용 건이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

에 있다는것을 내놓고 떠돌었다. 여기에 유사시 조선반도에 제일먼저 투입되는 미해병대 제3원정미단과 해군기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는바 그것은 전형적인 공격훈련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북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였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대규모부린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도 마찬가지이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F-15》, 《F-16》, 《FA-18》 전투기들과 《C-130》수송기, 《E-737》조기정보통제기

를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과 1 4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공중전과 《도발원점타격》, 공중급유, 전술폭격, 종신에 걸치도록 특수부대에 대한 침투보급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보통 5월에 하던 이 전쟁연습의 시기를 4월로 앞당겼으로써 훈련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의 긴밀한 협동속에 진행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투훈련으

로 되도록 한 사실만 보아도 내외호전광들이 이번 전쟁연습의 도발적성격을 강화하여 정세를 고의적으로 전쟁발발의 위기국면으로 바락 골고라고로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속에 역대 최대의 상륙훈련, 공중훈련을 2중3중으로 벌려놓고 《북급변사태》에 대비하느라, 지금 《평양점령》까지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도발광기와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대화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다.

공화국의 대화평화노력을 그 무슨 《화전량면전술》로 모독하면서 년초부터 미국을

전쟁이라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남북관계개선》과 《신회》가 침략질 소리가 아니라면 이상성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 성세의 악순환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

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었을때만 해도 온 겨레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런데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등에 업고 각종 전쟁연습들로 맞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방해한 당사자들이 북남관계완화의 가능성이요 뭐요 하며 허끝에 침을 발라대는데 참으로 안정대소하지 않을수 없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럽릴필수 없다. 상대방이 공화국의 선의에 칼을 내두르며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을 높이는데 어떻게 신뢰가 보장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의 핵전쟁위험속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최악의 파국상태로 끌고간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전쟁연습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뿐아니라 8~9월에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면 북남관계는 또 한번 시련을 겪게 된다. 수십년째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있다.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의 최대의 장애물, 커다란 암조이다.

남조선당국이 전쟁으로 북남관계개신과 대화, 평화를 바란다면 미국과 벌리는 북침전쟁연습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북침전쟁연습들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고말았다.

이러한 정세의 악순환이 수십여년째 반복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체제대결을 실현해볼 생각인것 같은데 전쟁이 그처럼 소원이라면 이제 당장이라도 해보자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 죽을줄도 모르고 한부로 헤딩비는 보수패당을 아예 빼도 추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봄이 깃들게 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충혁

## 불순한 목적을 노린 남조국

대사진은 위성사진보다 훨씬 자세한 수준이며 1m이내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을 정도였다. 사진에서 대통령속소가 있는 관저까지 뚜렷이 구분할수 있었다.》고 월면피하게 떠들며 《북소행실》을 들고나왔다.

제 입으로 화질이 나쁘고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떠들고도 손바닥 뒤집듯 《북소행실》을 들고나오는 남조선당국의 억지주장은 물체적리라고도 인터네트에서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는 사진들이라면 북이 구태어 무인기까지 띄워가며 수고스럽게 촬영하려 하겠는가.

남조와 모략의 능수인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증거들이란 이처럼 황당무계하기 이룰데 없는것들이다.

### 《구조가 지연된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최근 려객제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땅이 슬픔에 잠겨있다. 23일 20시까지 종합된 자료를 보면 476명의 승선자중 174명이 구출되고 156명이 사망하였으며 146명이 여전히 실종상태이라고 한다. 더우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대부분이 수하객행실중에 올랐던 나이린 고등학생들인것으로 하여 비애와 슬픔은 더욱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 《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놓고 《이번 사고는 워낙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규모도 큰데다가 어느 대형참사와 달리 뒤집어지는 배를 지척에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갇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든 무기력감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은 온 민중의 가슴속을 후벼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가탑에 나라가 슬픔의 심연에 빠졌다.》라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실종자가죽

## 평화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보도원들과 같이 지난 15일과 16일 워싱턴에서 제5차 남조선미국 《통합국방협의체회의》가 열린데 이어 17일과 18일에는 남조선, 미국, 일본 《차관보급안보토의》라는 것이 벌어졌다. 여기서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북의 도발억제를 위한 연합방위능력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실시》와 《북핵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공조》 등에 대해 떠들었다.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대결공조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도발》에 따른 《연합방위》를 운운하면서 외세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어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란벽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였다. 그것이 얼마나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연습인가 하는것은 《평양점령》을 떠들며 사상 최대규모로 벌린 연합상륙훈련 하나만을 놓

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전지역에 대한 공중타격을 노린 연합공중전쟁연습인 《맥스 썬더》를 려이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점경으로 몰아갔다.

이번에 벌어진 《3국차관보급안보토의》 역시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것으로서 공화국을 파격으로 하고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그 무슨 《연합방위능력증진》이니, 《긴밀한 공조》니 하는것이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강화하겠다는것이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침략적인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으로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범죄적기도는 결코 성사될수 없다.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대결광신자들의 핵전쟁기도가 높아갈수록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백배, 천배로 강화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으로 얻을것이란 오직 자멸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김철호

##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의 재현

### 재미동토전국련합회 대변인이 주장

재미동토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9일 논평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조작한 무인기사건의 대결적정세를 폭로하였다.

론평은 박근혜가 무인기 사건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천안》호사건과 같이 동족대결에 리용하려 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두 사건 다 처음에는 북과 관계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립장을 돌변하여 《북의 소행》이라고 들고나왔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공동조사제의를 거부하고 《북의 소행》설을 고집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았으며 《1번》글씨와 같은 전혀 납득할수 없는 증거라는것을 제시했다는데서도 두 사건

은 같다고 밝혔다.

사건이후 대결조치를 취하고 그 무슨 《북의 공격》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전쟁무기구입과 군비증강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것도 동일하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파탄시키는데 대한 민심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조작정치를 감행하고있다. 무작정 《북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이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하는것은 과편지한 정치적술책에 불과하다.

무인기사건과 《천안》호사건은 초기 발표로부터 수사형태, 조작된 증거제시, 사건이후 취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형태이다.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는것이 마땅하다.

박근혜는 무인기사건을 조작하고 《트레덴션선언》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6월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꿈꾸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작 《정부》이다.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것은 물론 전쟁까지 하려 하고있다. 또한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무능력하고 야비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순순히 퇴진할리 없다.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21일 남조선국방부가 연제옥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전시켰다고 한다. 연제옥으로 말한다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군싸이버사령관을 하면서 《정치댓글사건》을 지시하고 청와대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등군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들은 《불난 집에서 제 밤을 구워먹으며

## 《방탄인사》

이 여론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말하자면 남조선당국은 군싸이버사령부가 감행한 《대선》개입의 화살로부터 청와대를 막기 위한 《방탄인사》를 한것이라는것이다. 하라는 정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리속만을 차리려는 현 남조선당국에 이해저래 민심의 비난과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김응철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보락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10일 외교부 1차관이라는자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유지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하였으며 외교부 대변인 역시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북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17개의 보수단체들과 악절보수언론들도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축구》한다 어쩌다 소란을 피우고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자들이 벌리는 일종의 광대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놀음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해 조작해낸것으로서 그 불법성과 도발성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소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려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해내고있으며 그 누구도 그 후보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보락소동에 추종하여 온 남조선의 이전 《정권》들조차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 보수당국이 이런 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하고있으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북인권전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국제적 압박공조실현을 위해 조작해낸 모략과 음모의 산물인 《북인권》소동에 남조선당국이 가담하지 말것을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허위와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을 조작해내고 앞장선데 이어 오늘은 또 《북인권사무소》설치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고 대결광기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세상에 현 남조선당국과 같이 동족에 대한 국도의 대결의식에 젖어있는 대결광신자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백해무익한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신랄히 지탄받고있는 저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를부터 관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현 남조선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책동을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보락소동이 가져오게 될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부질없는 놀음을 당장 걸어서야 한다.

박철남